

C. S. Lewis.

홍성사가 펴내는 C. S. 루이스 클래식

그간 번역과 편집의 문제로 읽기가 쉽지 않았던 C. S. 루이스를 새롭게 만나십시오. 오랜 시간 공들인 번역과 꼼꼼하게 원문 대조를 거친 성실한 편집으로 홍성사가 펴냅니다. C. S. 루이스의 저작권은 영국 'C. S. 루이스 협회'에 있으며,

루이스 협회와의 정식 저작권 계약을 통해 홍성사에서 계속 번역·출간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글로 C. S. 루이스를 이해하게 되었다. …… 한글로 되살아나는 루이스의 작품 세계 때문에 마냥 즐겁다.”

—송인규·합동신학교 교수, ‘순전한 기독교’ 서평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영적 유혹과 악마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

최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내기 악마 원우들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에 빠뜨릴 것인지를 조언하는 31통의 편지로 구성된 이 책은, '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잘못된 상상력을 치유하기 위한 '해독제'로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실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戰場)' 인지를 탁월하게 그려 주고 있다.

★독자층: 영적 전쟁과 인간의 본성적 약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

김선형 옮김 | 믿음의 글들 175 | 변형A5신 | 186면 | 양장 | 8,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임誌가 극찬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순전한 기독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19세기 서구인들이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서구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책.” — 동아일보

★독자층: 기독교를 배우고 가르치고 옹호하고 확산하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장경철·이종태 옮김 | 믿음의 글들 186 | 변형A5신 | 352면 | 12,500원



앞으로 나올 책

영문학자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 S. 루이스는 번역이 어려운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홍성사에서는 결코 루이스의 책들을 쉽게 허투루 번역하여 내지 않을 것이며, 번역과 편집 과정에 오랜 공을 들인 노력(勞作)을 펴내려 합니다.

2003년 이후에 출간 예정인 루이스의 책들은 *Miracles*, *The Four Loves*, *Till We Have Faces*, *Reflections on the Psalms* 등입니다.

1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신정론(theodicy) 문제를 다룬 책으로서, 루이스가 본격적으로 신학 주제를 다룬 최초의 책.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 천국과 지옥, 선과 악,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사랑 등 여러 신학 주제들에 관한 루이스의 예리하고 상상력 넘치는 사상들을 접할 수 있다. “충분한 지식과 체험에서 우러나온, 명쾌함과 강인함으로 쓴 책” (Times Literary Supplement)

이종태 옮김 ■ 2002년 3월 출간예정

2 기쁨에 놀라다 Surprised by Joy

자신의 성장 과정과 회심 이야기를 기록한 C. S. 루이스의 자서전. 루이스가 두 종류의 길, 이성(Reason)과 기쁨(Joy)을 통해 결국 신앙에 도달하게 된 여정을 촘촘히 보여 주고 있다.

강유나 옮김 ■ 2002년 11월 출간예정

3 거대한 간극 The Great Divorce

일종의 20세기판 ‘단테의 신곡’으로서, 지옥의 언저리에 사는 혼령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소풍을 가서 겪는 여러 사건들과, 그곳 천사 및 성도들과 나누는 여러 대화들을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 등에 대한 루이스의 사상을 환타지 형식으로 보여 주는 책.

이종태 옮김 ■ 2003년 상반기 출간예정

4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d

58세에 결혼했다가 4년 만에 불치병으로 사망하는 아내 조이를 잃게 된 루이스가, 자신의 슬픔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내려 간 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정직하게 표현되고, 또한 정직하게 극복 승화되고 있다. 루이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책.

이종태 옮김 ■ 2003년 하반기 출간예정